



『옷장 위 배낭을
꺼낼 만큼
키가 크면』
(송선미/2016/문학동네)

1. 동시 맛있게 읽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



2. 날마다 동시를 읽습니다.

<방법1> 매일 1부씩 나누어 읽어요.

<방법2> 차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시부터 골라 읽어요.

<방법3> 시집이 마음에 들면 한 번에 읽어요.

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읽고 싶을 때마다 꺼내 읽어요.

※ 눈으로 한번, 소리 내어 한번, 옮겨 적으며 한번! 이렇게 읽으면 시를 더 맛있게 읽을 수 있어요.

날마다 동시 읽기			
	읽은 분량	읽은 날짜	가장 좋았던 시 (제목쓰기)
1	제1부 바람이 분다		
2	제2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시간		
3	제3부 어떤 시를 읽었던 밤		
4	제4부 크리스마스 신데렐라		
5	제5부 맘대로 거울		
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편 고르기			

※ 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옮겨 적어 봅니다.

(시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색, 모양, 무늬 등으로 그려 넣어도 됩니다.)



내 마음에 들어온 시

※ 이 시를 고른 까닭 간단하게 써 보기

quiz 동시 퀴즈

[1단계] 시의 일부분의 낭송을 듣고, 시 제목을 맞춥니다.

문제	정답
등산로 옆 과수원에서 사과나무 전지를 하고 있다 사과나무 갈림길을 빼앗고 있다	사과나무 갈림길
마차가 없으면 어떠니? 구두가 없으면 어떠니? 그때는 맨발의 크리스마스! 생쥐를 잡아 와 누더기 옷을 가져와	크리스마스 신데렐라

- 가족, 친구와 함께 놀이하면 더 재미있습니다.
- 한 명은 시집을 들고 문제를 내고, 다른 한 명(또는 여러 명)은 시의 제목을 맞춥니다.
- 시집을 읽지 못한 사람과 놀이할 때는 차례 부분을 보고 맞추게 합니다.
- 정답을 알아본 뒤 문제로 낸 시를 함께 낭송합니다.

[2단계] 시의 낭송을 듣고(시 제목과 앞부분만 낭송),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낭송해봅니다.

- 난이도가 높습니다. 시집을 함께 여러 번 읽은 뒤 놀이하세요.
- 너무 어려우면 문제 출제 범위 정하기(제1부에서 내기, 제2부에서 내기 등), 힌트 주기(중요한 낱말 알려주기, 몇 줄인지 알려주기 등) 등을 합니다.
- 2단계 놀이가 가능하다면 “당신은 동시 박사”입니다.

문제	정답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두루미 초청장</p> <p>옆집 지붕 위로 두루미 한 마리 날아와 크단 날개 접고 먼 데를 본다</p> <p>하늘이 문득 파랗다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width: 150px; height: 50px; margin: 20px auto;"></div>	<p>두루미야,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?</p>